

순천시청 이은경 '금 명중'

대학실업 양궁대회 금 1·은1·동 2 순천대 강수빈 대학부 은메달 획득

순천시청 이은경이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은경은 최근 경북 진호양궁장에서 열린 제37회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일반부 리커브 30m 금메달, 50m 은메달, 60m에

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은경은 일반부 혼성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따냈으며 금1, 은1, 동메달 2개를 쓸어들었다.

이은경은 지난해 최미선, 강재영(현대모비스)과 조를 이뤄 출전한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겸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지역예선대회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중국을 6-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대학부 개인전에 출전한 강수빈(순천대 2년)은 박소영(한체대)에게 4-6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일반부 혼성부에 출전한 김재형, 이은경은 3위를 차지했다.

전남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이번 양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있을 전국 양궁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며 "전남 양궁이 전국 최강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은경

목포과학대 배구 시즌 첫 대회 준우승 단국대에 1-3 아쉬운 패배

목포과학대 배구팀이 올시즌 첫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목포과학대는 9일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여대부 마지막 경기에서 단국대에 세트스코어 1-3(22-25, 14-25, 25-20, 17-25)으로 아쉽게 패했다.

목포과학대는 지난 7일 우석대를 3-0으로 일축하고 8일에도 호남대를 꺾어 2연승을 거뒀다.

목포과학대 정진 감독은 우수지도자상, 김은지(2년)는 공격수상, 한주은(2년)은 사보상을 수상했다.

정진 목포과학대 감독은 "아쉬운 준우승이지만, 최선을 다 해준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다"고 말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무안에서 열리는 대학배구 2차대회에서는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2차 대회인 무안대회는 오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목포과학대 선수들이 9일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bbq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득점한 후 환호하고 있다. <한국대학배구연맹 제공>

"경주시청은 장 선배의 팀...눈 밖에 나면 선수 생활 어려워"

가혹행위 피해자 잇단 증언 '처벌해야 할 1순위'로 지적

고(故) 최속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뒤 육기를 낸 추가 피해자들과 목격자 대부분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핵심 선수 장모 선수를 '처벌해야 할 1순위'로 지적했다.

9일 공개된 동료들의 증언 파일에도 장 선수의 집요한 가혹행위 혐의가 드러난다.

장 선수는 "장 선배 눈 밖에 나면, 경주시청에서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하기 어렵다. 장 선수 기분을 건드리면 정말 난리가 난다. 일주일 넘게 시달리는 선수도 봤다"며 "나는 남자여서 숙소에서는 다른 층을 썼지만, 여자 선수들은 같은 층을 쓰니까,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 선수는 "장 선배는 폭언을 정말 많이 한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붙이다가도, 순간 엄청나게 잘해준다.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주듯이"라며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나오면 감독에게 가서 '알아서 하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A 선수는 장 선수의 실력만큼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실력조차 가혹행위의 무기로 썼다.

"솔직히 장 선배가 운동은 잘하긴 잘한다. 10년 동안 경주시청에 메달을 그렇게 많이 안겨줬으니, 영향력이 커진 것도 있다"고 운을 뗀 그는 "그래도 내가 네 연봉 여기까지 만들어줬잖아. 내 덕에 단체 금메달 땀잖아"라고 말할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어졌다. 다른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체전 경기를 뛰는데, 모든 게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했다"고 밝혔다.

A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종목에서 경주시청을 '장 선배의 팀'이라고 한다"고 했다.

B 선수도 "경주시청은 '장 선배의 팀'이라고 불렀다"고 같은 증언을 했다.

이외 고 최속현 선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B 선수는 "최속현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경주시청과 합동 훈련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속현 선수도 '장 선배 최고, 김 감독님도 최고'라고 했다. 그런데 장 선배가 최속현 선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최속현 선수는 (괴롭힘을 당하는 시점에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했다"고 말했다.

C 선수는 "장 선배는 어떤 계기도 없이, 갑자기 특정 선수를 미워하고 괴롭힌다. 경주시청은 장 선배와 감독이 모든 걸 주도하는 폐쇄적인 집단이어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선수 두 명은 "주장 선수는 훈련할 때 실수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옥상으로 끌고 가 뛰어내리라고 협박했다", "물레방에 들어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모바일 메시지를 읽었다"고 장 선수의 폭행, 폭언을 증언했다.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장 선수는 "나는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일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 최속현 선수가 남긴 진술서, 다른 선수들의 진술 영상을 종합하면 경주시청 내에서 장 선수가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 처



지난 6일 오후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서는 장모씨 /연합뉴스

분을 했다. 경주시청을 자신의 팀으로 만든 장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레이싱 '살아있는 전설' 알론소 포물러 원 복귀

레이싱의 '살아있는 전설' 페르난도 알론소(39·스페인)가 세계 최고 무대인 포물러 원(F1)으로 돌아온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은 알론소가 2021시즌부터 르노 머신을 타고 F1 레이싱에 복귀한다고 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BBC는 알론소와 르노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입단 공식 발표판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8시즌을 끝으로 F1에서 은퇴했던 알론소는 3시즌 만에 복귀하게 됐다.

알론소는 2000년대 중반 F1 최강의 드라이버로 군림했던 '슈퍼스타'다.

2005, 2006시즌 연달아 월드 챔피언에 올랐으며 32차례나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무엇보다도 2004시즌까지 다섯 시즌 연달아 월드 챔피언에 올랐던 'F1의 제왕' 미하엘 슈마허의 시대를 끝낸 인물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제바스티안 페텔, 루이스 해밀턴 등 막강한 후배들에게 밀리다 끝내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2018시즌 맥라렌에서 은퇴했다.

"F1 밖에서 더 많은 걸 이루겠다"며 은퇴한 알론소는 르망 24시에서 우승하고 데이토나 24시, 인디 500에 도전하는 등 레이싱 경력을 이어갔지만, 결국 F1으로 돌아왔다.

BBC는 "알론소 측근들에 따르면, 알론소는 F1 수준의 레이싱 대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복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르노의 2021시즌 드라이버 진용은 알론소와 에스테반 오콘(24·프랑스)으로 꾸려졌다.

알론소 자리에 있던 다니엘 리카르도는 이미 올 시즌을 끝으로 맥라렌으로 이적하기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NBA 밀스, 인종차별 철폐 위해 잔여 시즌 급여 12억원 기부

미국프로농구(NBA) 샌안토니오 스포츠에 서빙하는 호주 출신의 가드 패트 밀스(32·사진)가 인종 차별 철폐 운동에 힘을 보태고자 약 12억원에 이르는 잔여 시즌 급여를 기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9일(이하 한국시간) 밀스가 이달 말 재개하는 NBA 2019-2020시즌에 참가하기로 했고, 이로써 받게 될 잔여 시즌 급여 약 100만달러를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하는 호주에 세계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밀스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샌안토니오의 잔여 시즌 8경기를 뛰고 101만7818달러 54센트(약 12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여파가 아니었으면 밀스는 올 시즌 1250만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밀스의 기부금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본부와 비롯한 호주의 세계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밀스는 시즌 잔여 경기에 뛰기로 결정한 것도 기부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NBA 시즌 잔여 경기에 출전하고 받을 급여를 기부하기로 한 것은 밀스가 처음은 아니다. 밀스에 앞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도 70만달러로 예상되는 잔여 시즌 급여를 흑인 인권 운동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용훈 광주시검도회장, 대한체육회 100주년 유공자

이제방 빛고을노인타운 검도 사범은 체육상 최우수상

최용훈 광주시검도회장이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제방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검도 지도사범은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생활체육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9일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최용훈 광주시검도회장이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 체육유공자(전문체육 진흥 지방체육 육성 부

문)로 선정돼 공로패를 받는다. 최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광주시검도회장을 맡아 검도 발전과 국가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최 회장은 학교운동부인 서석중·고등학교 검도팀을 육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그가 몸담고 있는 유당학원에서 주최하는 유당기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는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행사로, 전국 검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용훈 회장



이제방 사범

이제방 사범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사업인 '어르신체육 활동지원 어르신검도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

강한 삶을 이끌었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봉사했다.

이 사범은 36년 동안 검도계에 몸담으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광주 복지재단 검도 지도사범, 광주여대 지도사범을 맡아 검도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가 지도하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검도부는 지난 2018년까지 '전국 어르신 검도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 사범은 잊혀져가는 '조선세법(朝鮮勢法)'의 명맥을 되살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여대 학생들에게 전통검법을 전수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원데이 ONE DAY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원 데이, 위대한 소년

3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그레텔과 헨젤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4관 그레텔과 헨젤

5관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6관 다시 태어나도 우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발새, 시대유감, 삼풍, 우리들, 인생 후르츠

9관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담뱃터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결백

8관 씨네카를 소리꾼, 침입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주원의 방랑예찬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2020. 7. 22.(수)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오월바람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창작발레 오월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동화음악회

GAC기획공연 - FOCUS V

동화음악회 - 책으로 풍을 댄다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